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박병호(왼쪽 첫 번째) 전남도 행정부처장 3일 음압격리병동 시설을 갖춘 강진의료원을 방문, 정기호 원장 안내를 받으며 대응체계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도내 의료진들에게 마스크 2만8천매를 지급했다. /전남도 제공

신종 코로나 확산...앞으로 열흘 고비

시·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중·유학생 대책 협의
장성아카데미 특강 취소·곡성은 군민과 대화 무기한 연기

인접한 전북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일선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를 취소·연기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시·군·자치구들은 앞으로 1주일에서 열흘 가량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수준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3일 오전 예정됐던 월간 정례 회의를 취소하고 신종코로나 대응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개학을 앞둔 중국 유학생들이 춘제를 보내고 입국하게 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오후에는 지역 18개 대학과 대책 회의와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광주권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작년 말 기준 2천6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한꺼번에 입국할 경우 지역사

회 감염 우려가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조선대와 광주대 등 각 대학들은 유학생의 개학 시기를 조정하는 등 능동 대응에 들어갔다.

아울러 광주시는 기존 방역대책본부와 재난대책지원본부를 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열기로 한 공공기관 현장 보고회도 국가 지정 병원 및 선별 진료소 현장 방문으로 대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일 1회 이상 재난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선별 진료소 11곳,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2곳(12병상)을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진단을 위해 일선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각 시·군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 55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또한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는 도내 의료인 2천800명에게 의료용 마스크 2만8천매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이 오는 6일로 예정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김동연 전 부총리 특강을 취소하고, 곡성군은 '군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바른 손 씻기, 옷소매로 입·코 가리고 기침하기 등 예방 행동수칙을 꼭 지킬 것과 중국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도 취소됐다. 전국 시장과 도지사들이 각 지역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는데 집중하는 차원에서다.

김경석 기자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오늘부터 본격화 지역모집 응시자 시험장소 선택권 확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중)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시험이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월 15~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 지역별로 정해진 특정한 시험 장소(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

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 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을 처음으로 공개채용에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올해는 재경직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등 9명을 각각 선발한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수 기자

문 대통령 지지 호남만 나홀로 상승

리얼미터 조사 전국 45.0%...광주·전라는 72.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에 45%대로 떨어졌다. 20~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5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45.0%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45%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주차(44.5%) 조사 이후 3개월만이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4% 포인트 오른 50.3%(매우 잘못한다 36.5%, 잘못하는 편이다 13.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

섰으며, '모름·무응답'은 4.7%였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에서 전주 대비 4.6% 포인트로 하락이 컸다. 특히 연령대별로 30대에서 6.3% 포인트, 20대에서도 4.9% 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5.4%로 1월 4주차 조사(49.4%) 때보다 4% 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오히려 긍정평가가 2.1% 포인트 상승하며, 무려 72.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및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과 무선·유선 병행 무작위 생성 표본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